

## 부루노, 바우흐(三)

現代 世界 唯一民族 哲學者

安浩相

바우흐는 認識論을 껍 重要視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認識論을 哲學의 最高位를 삼으며 倫理學을 否認하지안는다. 그는 다못 認識論을 否認하며 排斥하는 哲學과 倫理學을 否認할뿐이다. 그는 理論哲學(認識論)에 對한 實踐哲學(倫理學)의 優位를 否認하는 동시에 實踐哲學에 對한 理論哲學의 優位조차 否認한다. 웨그러나 하면 理論哲學과 實踐哲學은 哲學 全體係안에선 제 各各한 部分과 契機를 만드러내는 새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各各맞든일과 할 일을 가졌스며 또 제의 맞든 일과 할일을 남에게 맞기 지도 아니하며 또 맞길 수도 업슴은 제가 맞든일을 남이 할수도 업스며, 또 남이 맞든 일을 제가 할 수도 업는 새문이다. 理論理性和 實踐 理性 理論 哲學과 實踐哲學들은 哲學 全體係에선 絶對 依存關係를 가진 두 契機들이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上下 貴賤과 嫉妬시기가 업고 오즉 窸업는 사랑과 넘치는 和氣로서 共存共榮을 누릴 뿐이다. 哲學 全體係에선 理論哲學과 實踐哲學이 同價同等이다. 그들은 各各제의 特性和 優位를 가졌다고 바우흐는 말하엿다. 다시 말하면 한 便으로 認識論이 倫理學에 對해서 優位를 갖고 또 다른 便에선 倫理學이 認識論에 對해서 優位를 갖게 된다. 웨그러나 하면 認識問題를 풀려면 理論理性이 맞든 認識論이라야 될 것으로, 倫理問題를 풀려면 實踐理性이 맞든 倫理學이라야되는 새문이다. 認識論과 倫理 學理論理性和 實踐理性, 이들은 결코 서로서로 排斥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絶對로 扶助한다. 理論理性이 업는데선 實踐理性이 實踐할 수가 업고, 實踐理性이 업는 데선 理論理性이 理論할수가 업다. 웨그러나 하면 理論理性이 理論함은 곳 理를 論함이다. 이 「論」은 함 「爲」으로서 곳行(實踐)이며, 또 그 實踐理性이 實踐함은 곳 밝아行하는것이며 이 行함은 正道正理를 行하는것인데 이 道理를 아라내는 것은 곳 理論理性인 새문이다. 究極에 이르러선 理論理性和 實踐理性이 兩個의 別種理性들이 아니라 다 가튼 한 理性의 두 使用方向들이라고 바우흐는 칸트와 가티

主張하였다.

바우흐가 主張한 認識과 實踐의 相互關係를 저와가티 表示할 수가 있다. 眞(認識)이 업는 데선 價値잇는 行함(實踐)이 업스며, 行함이 업는 데선 참된 眞이 업는法이다. 우리의 日常生活에선 知업는 行과 行업는 知가 수업시 만타.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가티 知업는 行에 큰 價値를 줄 수 업스며 行업는 知를 참되며 完全타고 할 수 업다. 이가티 價値업는 行과 참되지 못한 知는 眞서 제 自體속에서 矛盾과 否定을 갖고 있다. 웨그러냐 하면 참 아닌 知는 거짓 知라한 非知이며, 價値업는 行은 眞行이 아니라, 한갓 假行인 眞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問題삼는 그 知는 非知가 아니라 그 知 그것이며, 行은 그 假行이 아니라 그 行그것이다. 그럼으로 哲學的에선 知(認識)과 行(實踐)이 絶對的 依存關係를 가졌다. 知업는 行과 行업는 知는 될 수 업다. 眞(知)은 行할길(李性之謂道의道)를 아는 것이오. 行은 안길을 行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知는 行의 知, 行은 知의 行이다.

#### 四, 그의 人生觀

우리는 眞으로 人生觀을 부르지즈며 眞으로 人生觀을 가졌는체 한다. 그러나 「人生觀이 무엇인가?」고 무를 적에는 우리는 眞하기를 서슴는다. 한금해가 人生觀은 眞을 알아낸 것 혹은 보아낸 것이라고 眞할것이다. 그것은 眞論 그러타 眞을 알아낸 것이 이다. 그러나 眞을 알아내며 보아낸 眞 또한 여러 길(路)이며 여러眞이다. 眞은 生物이라 다른 生物과 가티 肉體를 가졌스며, 또 眞은 人間이라. 眞을 가졌다. 眞은 肉體眞과 眞眞을 가졌기 眞문에 眞은 眞도 아니오. 眞眞도 아니라 「眞眞과 眞眞의 眞結이 眞眞인 眞이라고 바우흐는 말하였다.(참과 價値와 眞眞, 五〇一頁와 五一三頁)